

8월 7일 뉴스 종합 정리

2009년 8월 7일

리서치센터

02) 2009-7083

hsjeong@leading.co.kr

제목	주요 내용
뉴욕증시, 고용지표 경계감..다우 0.2%↓	뉴욕증시가 6일(현지시간) 하루 앞으로 다가선 7월 고용지표에 대한 경계감으로 이틀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음. 블루칩 중심의 다우 지수는 24.71포인트(0.27%) 하락한 9,256.26을,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9.89포인트(1%) 떨어진 1,973.16을,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는 5.64포인트(0.56%) 하락한 997.08을 각각 기록했다. 이날 주간 실업수당 지표가 개선세를 보였지만 하루 앞으로 다가온 7월 고용지표에 대한 경계감이 더 큰 영향을 미쳤음. 금융주가 견조한 흐름을 보였지만 의료 건강 업종이 부진한 가운데 통신주인 메트로PCS가 폭락세를 보이며 투자심리를 압박했음. 주식시장 조정으로 국제유가는 하락세로 돌아섰음. 반면 미 달러화는 강세를 나타냈고 주식시장 조정과 더불어 유럽지역의 금리동결이 영향을 미쳤음. 미 국채시장은 7월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혼조 양상을 나타냈음.
주간 실업수당 청구건수 `양호`	7월 고용지표 발표를 하루 앞두고 있는 가운데 지난주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양호한 수치를 내보였음. 미 노동부가 발표한 지난주(1일 마감기준)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전주보다 3만 8,000건이 감소한 55만건을 기록했다. 이는 5주 연속 60만건을 밑돈 수치이고 시장의 당초 전망치에 비해서도 양호한 수준임.
국제유가 소폭 하락	국제유가가 미 달러화 강세와 주식시장 조정 영향으로 하락했음. 낙폭은 미미해 국제유가는 배럴당 71달러선을 유지했음. 6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거래된 서부 텍사스산 원유(WT) 9월 인도분 가격은 배럴당 3센트(0.04%) 소폭 하락한 71.94달러로 거래를 마쳤음.
유럽지역 통화, 달러화에 약세..금리동결 여파	유럽중앙은행(ECB)과 영국의 중앙은행인 영란은행(BOE)은 이날 경기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사상 최저치 수준인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일제히 동결.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유로와 파운드화가 달러화 등 주요국 통화에 대해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음. 특히 영란은행은 대표적인 `양적완화` 정책으로 꼽히는 채권 매입 프로그램을 향후 추가로 확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파운드화의 약세를 더욱 부추겼음. 파운드화는 달러화 뿐만 아니라 이날 약세를 보인 유로화에 대해서도 9일만에 처음으로 하락세로 돌아섰음.

제목	주요 내용
내려가는 환율..외환당국 어떻게 보나	달러-원 환율이 1,200 원을 깨고 1,100 원대로 진입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시장의 관심은 외환당국쪽으로 쏠리고 있음. 시장 자체의 수급이나 심리만 봐서는 1,100 원대로의 진입이 시간문제로 보이지만 외환당국이 그런 수준의 환율을 쉽게 허용하느냐가 속단하기 어려운 변수라는 게 외환시장 참가자들의 대체적인 시각. 한 은행권 외환딜러는 "정부의 개입이라는 변수만 없다면 환율은 벌써 1,100 원대로 내려갔을 것"이라면서 "확신하기는 어렵지만 요즘도 장중에 당국의 스무딩 오퍼레이션 물량으로 보이는 주문이 가끔 눈에 띈다"고 말했음.
이유일 쌍용차 관리인 "인수의향자 3~4곳 있다"	7일 쌍용차(003620)에 따르면 이유일 공동관리인은 최근 임원들에게 "현재 쌍용차 인수에 관심을 표명한 국내외 업체가 3~4곳이 있다"며 "다만 이들 업체 모두 인력 구조조정의 원만한 해결을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다"고 밝혔음. 이 관리인은 또 "국내 업체의 경우 40대 그룹 중 하나로, 완성차 메이커는 아니다"라며 "이 회사는 쌍용차를 인수할 경우 매출 규모를 크게 올릴 수 있다는 계산에서 큰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고 설명. 그는 해외업체의 경우 완성차 업체이며, 어떤 업체인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밝힐 단계가 아니라고도 했음.
오리온, 中사업 호조.."내친김에 해외매출 1조"	오리온(001800)이 중국시장에서 얻은 자신감을 바탕으로 해외시장 공략을 강화할 예정. 이를 통해 지난해 4,200억원 수준의 해외매출을 2011년 1조원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 특히 해외시장 공략의 전초기지 역할을 하고 있는 중국에서만 2012년 1조원 매출달성을 목표로 잡아 눈길을 끌고 있음. 오리온 관계자는 "올해 중국에서 목표한 매출 4,500 억원은 무난히 달성할 것"이라며 "오는 2012년까지 중국내에서 1조원의 매출 달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중"이라고 말했음. 오리온은 이를 위해 향후 중국에 2~3개의 공장을 추가로 설립한다는 계획.

<참고> 위 내용은 단순한 정보전달로서 뉴스를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